



4일 오전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 대한민국과 터키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4강행을 확정 지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자배구, '강호' 터키 잡고 4강 진출

5세트에 김연경 연속 득점으로 3-2 역전승... 45년만에 메달 도전 가능성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강호' 터키를 제압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스테파노 리베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은 4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터키와의 8강전에서 3-2(17-25 25-17 28-26 18-25 15-13)로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2012 런던올림픽 4위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서 4강에 진출했다. 또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무려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세계랭킹 13위 한국은 터키(4위)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은 경기 마지막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여 이변을 연출했다.

터키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세계 최정상급 리그에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최근 기세는 무서웠다. 강호 터키를 만나 한국은 접전을 벌였고 결국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에이스 김연경이 고공공격으로 다시 한 번 이번의 주역이 됐다. 터키를 잘 아는 김연경은 28점을 올려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연경은 2011년 터키리그에 진출해 페네르바체 엑사치비시 등 명문구단에서 활약했다. 터키 대표팀 선수 12명 중 11명이 김연경과 한 술밥을 먹었거나 직접 상대했던 선수들이었다.

김연경은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매 경기 놀라운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클러치 박' 박정아는 승부의 분수령인 3세

트에서 마무리 득점을 올리는 등 16점을 올렸다. 센터 양효진은 흐름을 뺏는 블로킹을 6차례나 잡는 등 11점을 기록해 승리를 이끌었다.

센터 양효진은 다양한 공격 무트를 적극 활용해 터키의 장신 수비진을 무력화시켰다. 터키는 매리엄 보즈(24점)와 제후라 귀네슈(14점)를 앞세워 승리를 노렸지만 한국의 투혼에 막혀 고배를 마셨다.

한국은 1세트에서 보즈를 막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리드를 빼앗겼다. 김연경이 고공분투했지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제후라 귀네슈와 보즈는 1세트에서만 12점을 합작하는 등 한국의 조직력을 허물었다. 한국은 2세트에서 투지 있는 공격과 블로킹을 앞세워 6-2로 리드를 잡았다. 반면 터키는 실책을 저지르는 등 조직력이 흔들렸다.

분위기를 바꾼 한국은 2세트에서 김희진의 백어택과 김연경의 날카로운 공격 등으로 12-6



4일 오전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 대한민국과 터키의 경기. 김연경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으로 돌아왔다. 13-7에서는 양효진의 날카로운 서브에 이어 김희진의 블로킹으로 기세를 올렸고 곧바로 양효진의 서브에이스가 터졌다.

이후 17-7로 달아난 한국은 김희진, 박정아의 감각적인 공격을 앞세워 터키의 추격을 뿌리쳤다.

경기 흐름을 가져온 한국은 3세트 중반까지 터키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15-12에서 터키의 장신 수비력과 공격수에 고전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한국은 3세트 후반까지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21-21에서 김연경이 연속 공격을 성공시켜 23-21로 달아났다. 한국은 경기 막판 26-26으로 듀스를 허용했지만 상대의 넷터치 범실에 이어 박정아가 천공같은 공격을 성공시켜 전세를 뒤집었다.

한국은 4세트에서 터키의 공세로 인해 2-8로 주도권을 내줬고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패했다. 한국은 5세트 3-6으로 뒤진 상황에서 상대 범실과 김희진의 블로킹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결국 6-7에서 박정아의 공격으로 동점을 만든 후 상대 범실로 역전에 성공했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10-10에서 김연경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12-10으로 달아났다. 상대 범실에 편승해 13-1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이후 김연경이 블로킹으로 매치포인트를 만들었고 14-13에서도 김연경이 경기를 끝냈다.

김연경은 5세트 마지막 5차례의 득점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해결했다.

극적으로 4강에 진출한 한국은 45년만의 올림픽 메달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도쿄올림픽은 나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말했던 김연경과 황금세대는 이제 준결승을 향해 뚫다.

7뉴시스

조광희, 카약 1인승 200m 조 1위

오늘 오전 준결승... 메달 도전

한국 카약의 간판 조광희(28·울산시청)가 2020 도쿄올림픽 카누 스피드 남자 카약 1인승 200m 준결승에 진출했다.

조광희는 4일 일본 도쿄의 우미노모리 수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카누 스피드 남자 카약 1인승 200m 준결승에서 35.048의 기록으로 3조 5명 중 1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앞서 예선 3위로 1~2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 직행 티켓을 따지 못한 조광희는 준결승에서 조 1위에 오르면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준결승행이다. 카약 1인승 200m 준결승은 5일 오전에 열린다.

총 16명이 참가하는 준결승에서 8명 안에 들면 결승에 올라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 조광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카누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뤘다.

7뉴시스

박인비·고진영 '순조로운 출발'

올림픽 여자골프 1라운드서 박인비, 2언더파로 마무리 고진영, 3언더파 적어내

올림픽 여자골프 2연패를 노리는 골프 여제 박인비(33·KB금융그룹)가 무난하게 여정을 시작했다.

박인비는 4일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과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1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쳤다.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적어낸 박인비는 오후 2시20분 현재 공동 8위 그룹을 형성 중이다.

아직 대다수 선수들이 라운드를 소화 중이라 순위는 조정될 공산이 크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116년 만의 부활한 여자골프 금메달을 거머쥔 박인비는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박인비 역시 "그때보다 부담도 덜하고 컨디션도 좋다"면서 호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박인비는 2번홀 버디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7번과 8번홀에서는 연속 버디를 홀컵에 떨어뜨리고 기세를 올렸다.

이후 파세이브 행진을 이어가던 박인비는 마지막 18번홀에서 첫 보기를 범해 어렵게 순위가 밀렸다.

세계랭킹 2위 고진영(26·솔레이어)은 3언더파 68타로 올림픽 데뷔 라운드를 마쳤다.

12번홀까지 1오버파로 주춤했지만 13번·14번·16번·17번홀 버디를 쏟아내는 몰아치기 능력을 과시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4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뉴시스



7뉴시스

"삼금(三金)이 돼서 기뻐"

'양궁 3관왕' 안산 "올림픽 넘어 세계신기록 도전"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안산이 재하 중인 대학을 찾아 세계 신기록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며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안산은 4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세계 신기록이 더 크고 좋다고 생각한다. 기록 달성을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신기록은 개인전 랭킹라운드 점수를 가리킨다. 안산은 이번 올림픽에서 6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달성한 신기록 673점을 넘어선 기록 경신이었다.

다만 목표로 삼은 '세계신기록'은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강재영

(25)이 지난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682점을 가리킨다. 안산은 이번 올림픽이 성인 선수로서는 사실상 첫 국제대회 데뷔 무대였다.

안산은 올림픽 3관왕 달성 당시 소감에 대해선 "(결승) 슈트오프 이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도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떠오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영광스럽고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혼성 4강전에서 10점 과녁에 꽂힌 김제덕의 화살의 뒤를 명중시키는 이른바 보빈 후드 애로우(꽂힌 화살 뒤를 명중시키는 화살에 대해서도 "선수 생활 목표 중 하나였다. IOC올림픽박물관에 전시되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올림픽 여정 중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개인 4강전을 꼽았다. 안산은 4강전에서 미



4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안산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의 맥켄지 브라운과 세트 스코어 5대5 이후 슈트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개인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산은 "4강전 슈트오프가 기억에 남는다. 좀 떨렸지만 활을 쏘고 난 뒤엔 10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훈련 과제에 대해 안산은 "시합 때 평정심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바람을 잘 파악하는 것도 다뤄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며 훈련할 계획이다"라고 다짐했다.

뒤통자리를 해준 부모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안산은 "경기 직후 부모님께서 전화로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격려 말씀 많이 해주셨다"면서 "어머니가 출국 전 '일본올림픽이니 일금(金)을 따고 오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일금이 아니라 삼금(三金)이 돼서 기쁘다"고 미소지었다.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라고 하며 수줍어했다.

선수로서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론 "운동할 때 한다. 슬럼프 같은 감정, 생각을 빨리 떨쳐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운동할 때 마음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성적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7뉴시스